

#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 노동자의 보호

##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 정책세미나

---

---

2021/01/11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

김 명 희

---

발표 내용은 시민건강연구소와 의료연대본부가 2020년 11월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보건의료노동자, K 방역을 말하다: 더 나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제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전문 링크: <http://health.re.kr/?p=7124>)

# 유행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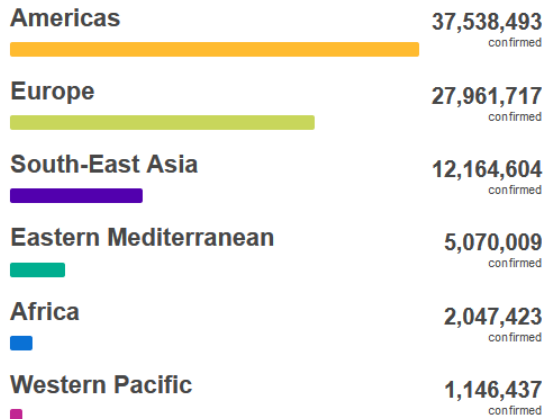


최악의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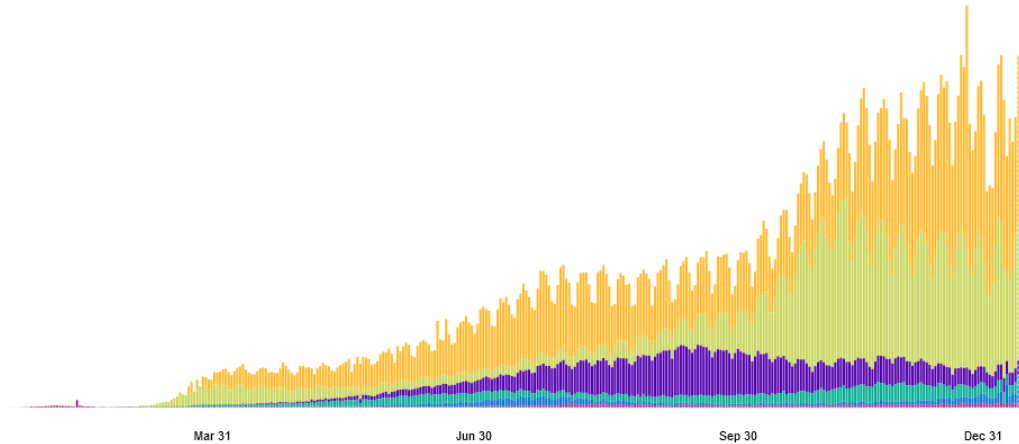
- CIDRAP 권고 (2020/04/30)
  -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대비
  - 보건의료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 완화 전략 재도입의 구체적 계획 마련
  - 유행이 금방 종식되지 않을 것이며 향후 2년 동안 주기적 반등할 수 있음을 알리는 위험 소통 전략
- 어떤 시나리오든 최소 18~24개월 동안 재유행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실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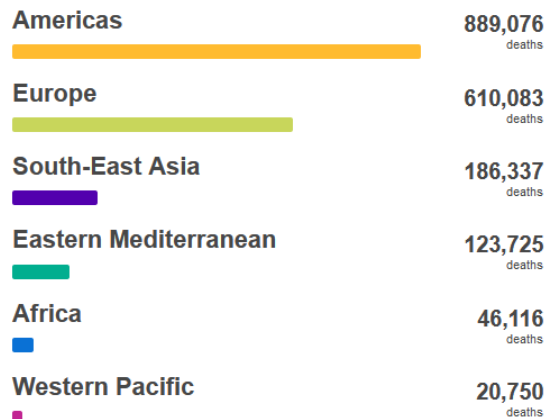
## Situation by WHO Region **확진자 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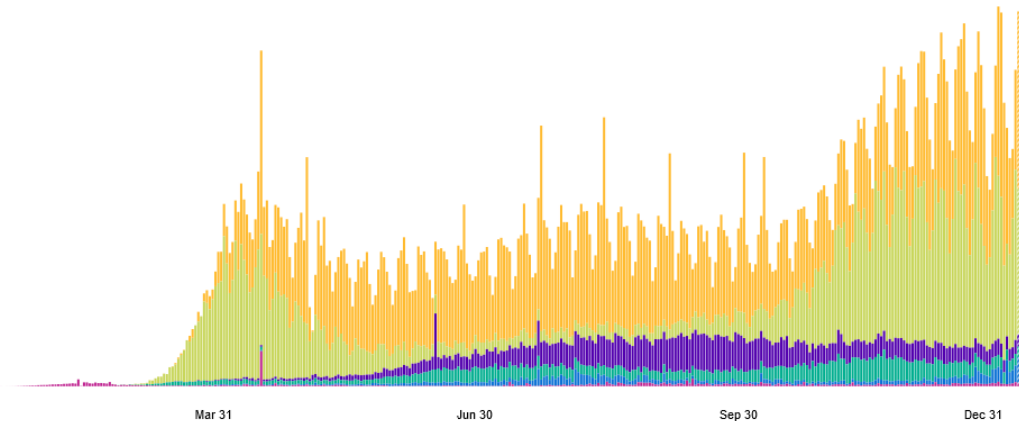
Source: World Health Organization  
 Data may be incomplete for the current day or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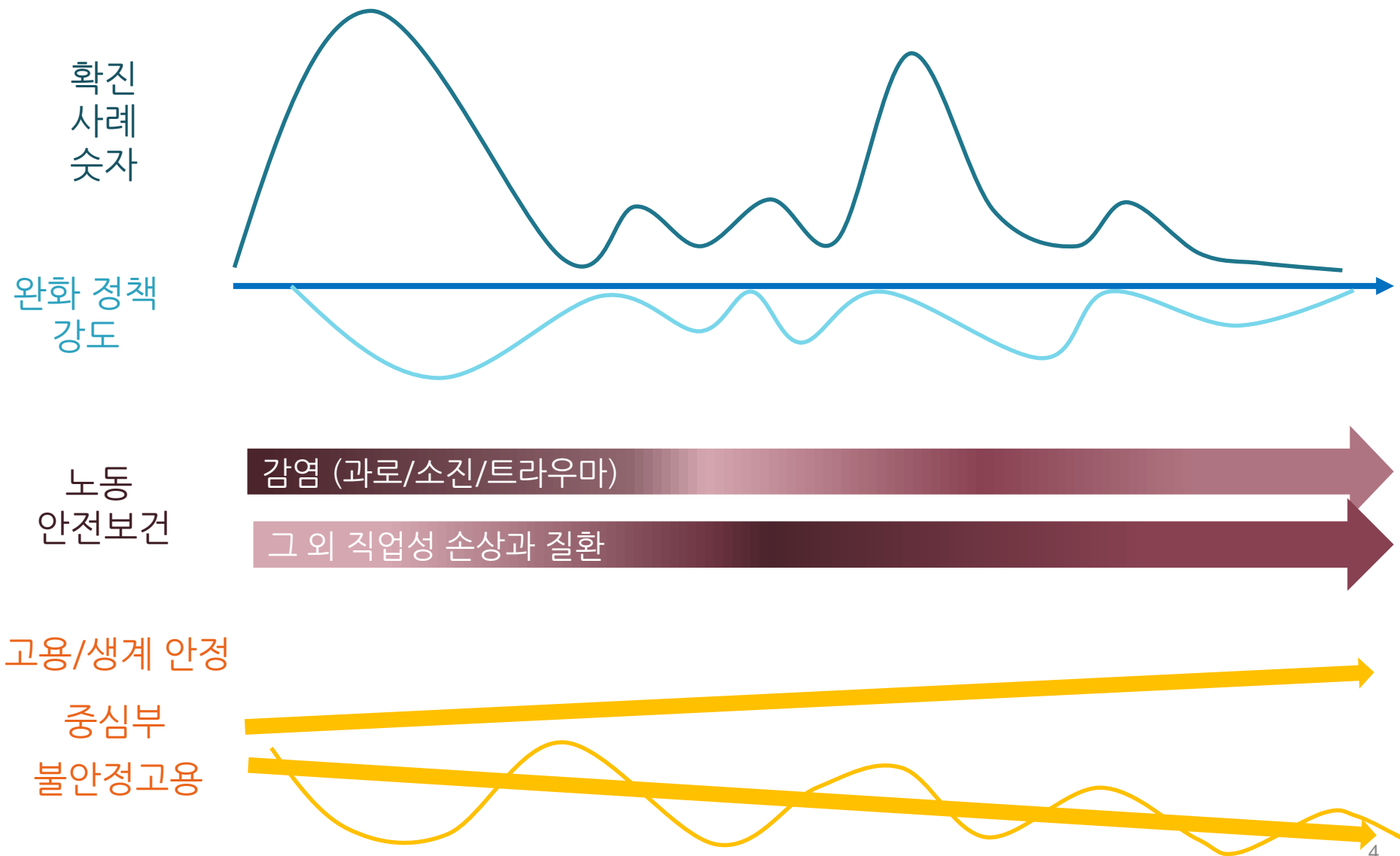
## Situation by WHO Region **사망자 숫자**



Source: World Health Organization  
 Data may be incomplete for the current day or week.



# 유행 상황과 위험의 변화



# 코로나19 유행이 초래한 노동안전보건 문제

---

# 노동안전보건 이슈 (1): 감염

대부분의 성인이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일터**.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3/5 경기도 J병원  
**42명** 감염



3/8 구로콜센터  
**95명** 감염



5/25 부천 C 물류센터  
**84명** 감염

**일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지역사회**로 빠르게 전파된다.

구로콜센터 근무자  
가족 구성원 34명 등  
2차 감염자  
**61명**



대구 H 요양병원  
입원환자 117명 중  
**57명** 확진



부천 C 물류센터 확진자  
접촉자 **68명** 감염

- 누가 위험한가?
-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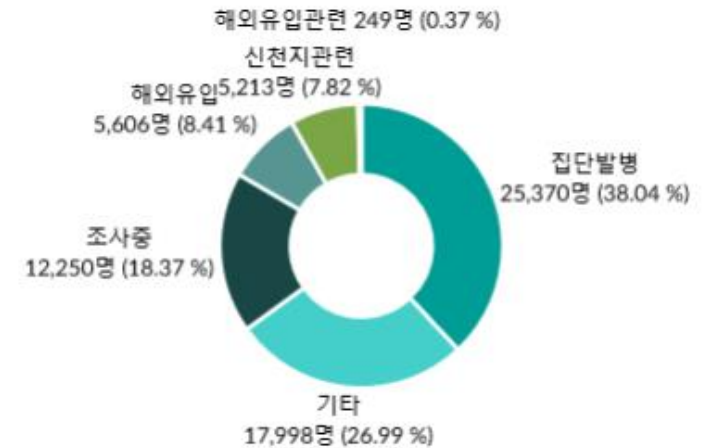
□ 확진자 성별 현황 (1.700시 기준)

구분	확진자(%)	사망자(%)
남성	32,643 (48.95)	525 (50.19)
여성	34,043 (51.05)	521 (49.81)

□ 확진자 연령별 현황 (1.700시 기준)

구분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
80 이상	3,336 (5)	583 (55.74)	17.48
70-79	5,204 (7.8)	293 (28.01)	5.63
60-69	10,555 (15.83)	124 (11.85)	1.17
50-59	12,513 (18.76)	33 (3.15)	0.26
40-49			
30-39			
20-29			
10-19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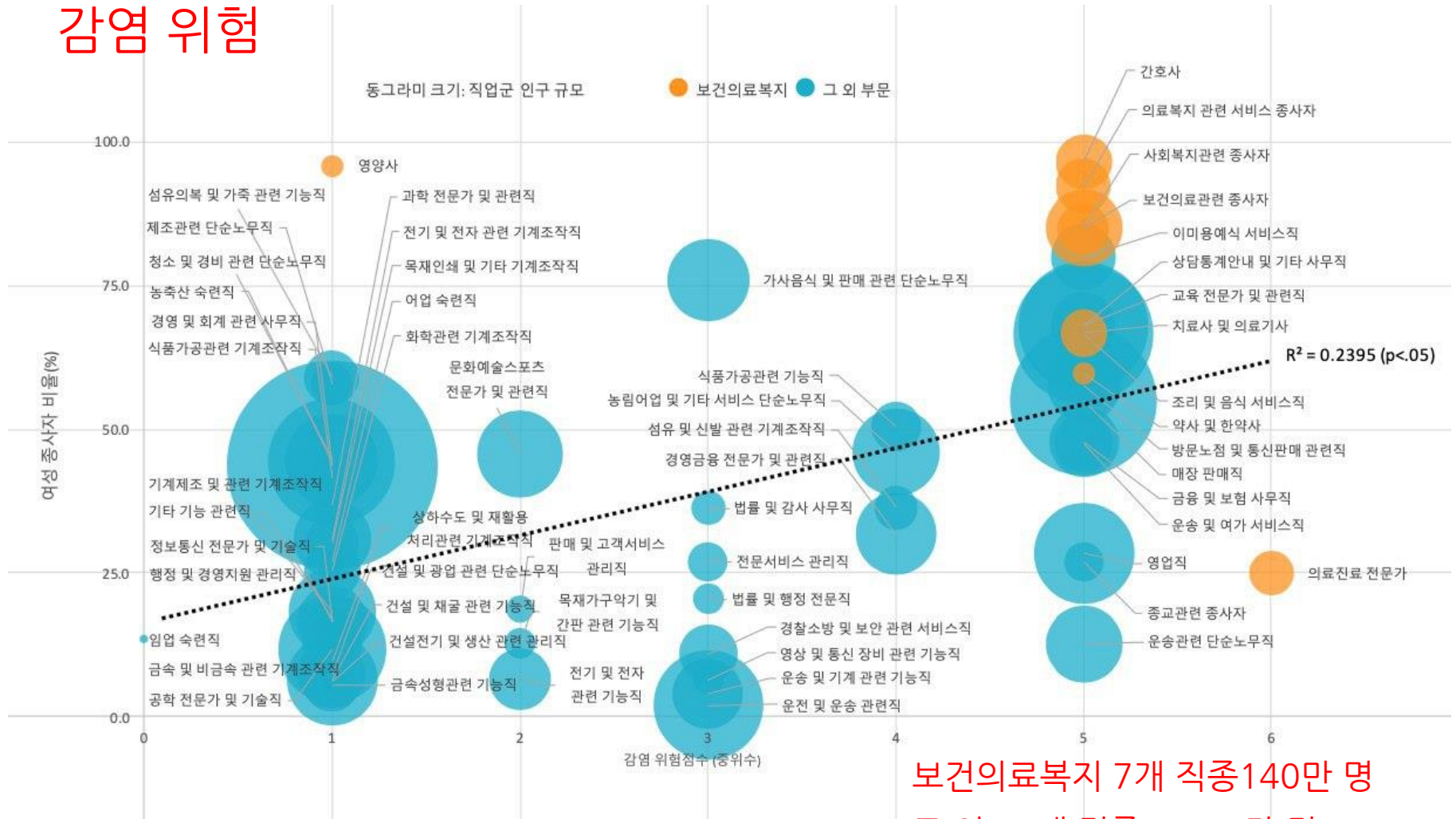
□ 감염경로별 확진자 비율 (1.7.00시 기준)



노동건강연대 ‘직업’ 집계(2020/06/25 시점): 정부 발표, 언론기사

- 전체 확진자 12,564명 중 604명(4.8%) 확인
- 요양병원/요양원, 병원에서 감염된 보건의료 종사자들, 해외여행객들과 접촉한 여행 가이드와 비행기 승무원, 사무실 환경에서 전파가 일어난 중앙정부 공무원들, 고객을 통해 감염된 식당 종업원들과 택시 기사, 소매점주,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 감염 위험



보건의료복지 7개 직종 140만 명  
그 외 23개 직종 1,073만 명

- 2017 근로환경조사 +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 “귀하가 하는 일에는 **고객, 승객, 학생, 환자**와 같은 직장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0) 절대 노출 안 됨 (1) 거의 노출 안 됨 (2) 근무시간 1/4 (3) 근무시간 절반 (4) 근무시간 3/4 (5) 거의 모든 근무시간 (6) 근무시간 내내

\* 출처: Lee & Kim. Estimation of the number of working population at high-risk of COVID-19 infection in Korea. Epidemiol & Health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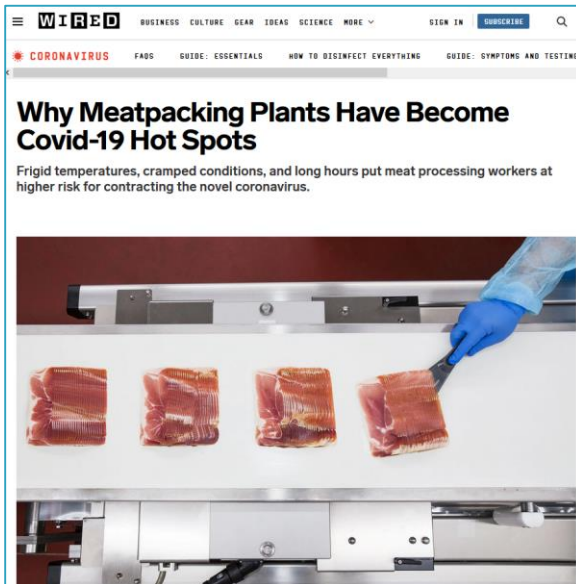


## 감염고위험군 중 고강도 위험 노출

감염 고위험 직업군 (3점 이상)	고강도 위험 노출 비율 (wt. %)	고강도 위험 노출 남녀 전체 (명)	고강도 위험 노출 여성 (명, %)
<b>보건의료복지</b>			
의료진료 전문가	17.7	25,844	6,480 (25.1)
약사 및 한약사	1.7	593	354 (59.7)
간호사	44.2	100,463	96,984 (96.5)
치료사 및 의료기사	31.3	49,437	32,978 (66.7)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32.7	61,200	51,964 (84.9)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36.6	157,324	133,854 (85.1)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68.6	152,944	141,105 (92.3)
(소계)		547,806	463,719 (84.7)
<b>기타 업종</b>		1,020,704	459,744 (45.0)

- 2017 근로환경조사 +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 “귀하가 하는 일에는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0) 절대 노출 안 됨 (1) 거의 노출 안 됨 (2) 근무시간 1/4 (3) 근무시간 절반 (4) 근무시간 3/4 (5) 거의 모든 근무시간 (6) 근무시간 내내

- 그런데! 콜센터, 물류센터 노동자 감염은?
  - 물리적 밀집 환경과 환기 문제: 북미/유럽의 육류가공업체, 물류센터
  - 위생 설비/용품 접근성 부족
  - '아프면 3~4일 쉬기' 불가능
  -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



# 코로나19 ‘사업장’ 집단 발병 사례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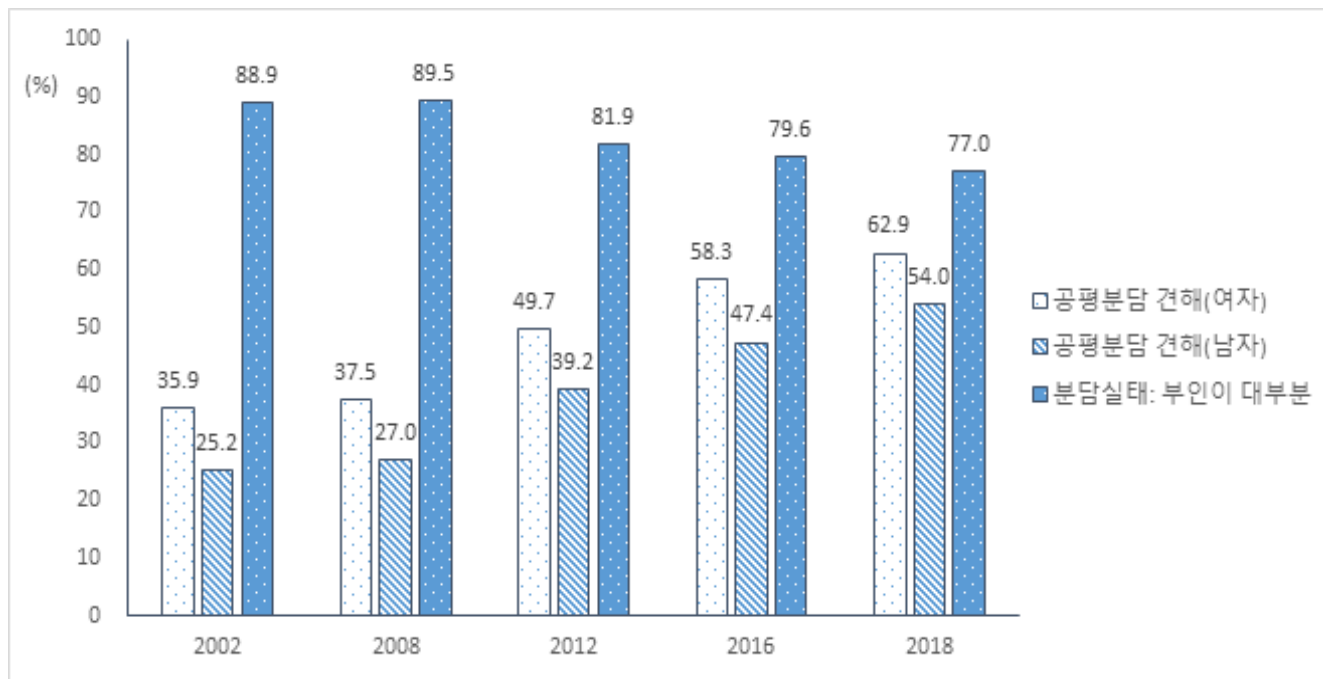


사업장명 (업종/의료기관종 별)	사업장소 제지	발생기간	확진자수	주요 위험요인
청도대남병원 (병원)	경상북도 청도군	2020.02.21.~ 2020.03.07	122명(환자 107명(사망자 7명 포함), 직원 14명, 가족접촉자 1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봉화 푸른요양원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경상북도 봉화군	2020.03.04.~ 2020.03.21	68명(입소자 49명, 종사자 19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구로구 콜센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서울특별 시 구로구	2020.03.10.~ 2020.04.03	166명(동일 건물 직원 97명(11층 94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69명)	밀폐도, 밀집도, 관리도, 활동도, 지속도
한사랑요양병원(요 양병원)	대구광역 시 서구	2020.03.18~2 020.04.23.	128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대실요양병원(요양 병원)	대구광역 시 달성군	2020.03.20.~ 2020.04.16	100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경산 서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경산시	2020.03.20.~ 2020.04.16	66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파티마병원 (종합병원)	대구광역 시 동구	2020.03.19.~ 2020.04.21	37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군집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사업장명 (업종/의료기관종별)	사업장소재지	발생기간	확진자수	주요 위험요인
★ 제이미주병원 (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0.03.27.~202 0.04.21	196명(환자 182명, 직원 14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 의정부 성모병원 (종합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0.03.31.~202 0.04.16.	69명(환자 26명, 직원 17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26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군집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이태원 클럽 (무도 유흥 주점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0.05.08.~202 0.06.09.	277명 -클럽 방문 9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181명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충북 9명, 부산 4명, 대구 2명, 경남 2명, 강원 2명, 전북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경북 1명, 제주 1명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쿠팡 물류센터 (일반 창고업)	경기도 부천시	2020.05.22.~202 0.06.16.	152명(물류센터근무자 84명, 접촉자 68명)	밀폐도, 밀집도, 지속도, 관리도
리치웨이(방 문판매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0.06.04.~202 0.06.29.	210명(방문자 42명, 접촉자 168명)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 성심데이케어 센터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0.06.12.~202 0.06.24.	47명(이용자 24명, 직원 6명, 가족 및 기타 17명)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지속도, 질병과 감염에의 노출, 집단생활, 업무과중, 고위험군, 전파차단 행위
대전 서구 방문판매 (방문판매업)	대전광역시 서구	2020.06.17.~202 0.06.29.	78명(방문자 35명, 접촉자 43명)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 노동안전보건 이슈 (2): 감염 이외

- 노동강도↑: 보건의료, 물류/배송/배달, 콜센터, 공공서비스...
- 일-가정 양립의 부담



- 일터 폭력
- 차별과 오명/낙인
- 화학 물질 노출: 청소 용품, 소독제
- 원격/재택 근무: 감시와 통제, 인간공학적 부담, 직무스트레스, 일-생활 분리 어려움 (장시간 노동)
- 정신건강 문제: 우울/소진, 트라우마, 고립감, 실직 불안





# • 안전보건 규제 집행 완화로 인한 위험 증대

국내 최초 인터넷소셜물인터넷과 함께하는  
**건설장터OPEN!**

조형물제작 로고인 후 건설장터를 클릭하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 전문건설신문**

전체메뉴 | 뉴스종합 | 전문 광장 | 오피니언 | 라이프 | 입찰정보 | 참여마당

2020-07-25 14:10 (토)

HOME > 뉴스종합 > 기술

## 고용부, 근로감독·산업안전감독 16일까지 유예

이창훈 기자 | 승인 2020.03.02 17:59 | 댓글 0

고용부,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서 발표  
굴삭기·지게차운전기능사 상시검정 2주간 중단

**TBS 뉴스** 최신 많이본 뉴스 **코로나19** 동영상뉴스 팩트ON 기획 여론조사 SNS

뉴스 > 경제

## 건설현장 계속 돌아가는데 코로나19로 중단된 안전점검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 기사입력 2020-06-22 15:00



OlympicNews 모든 사면은 기사다

전체기사 | 사인 이야기+ | 지역 | 연재/특별기획 | 랭킹30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미디어 | 민족 국제 | 여성 | 만평 만화 | 해외리포트 | 피플

**코로나19 현황** 7.25 0시 중앙방역대책본부 기준 확진 **14,092명** (+113) 사망 **298명** (-) 퇴원 **12,866명** (+49)

사회

## 4월에만 91명 사망했는데... '조용한 죽음' 된 이유


[4월 이달의 기업살인] '일터는 원래 위험하다'는 신호 없애야

20.05.13 14:05 | 최동원 기자 20.05.13 14:05 | 노동건강연대(laborhealth) |

+ 크게 | - 작게 | 4인쇄 | URL복사하기 | SNS | 90

본문듣기 | 원고료로 응원하기

34 3



▲ 38명의 사용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와 한류유망고공사장 화재 현장에 1일 오후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후 놓아준 국화꽃이 놓여 있다.

#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 보건의료 노동자

---



# 건강 위험

## 감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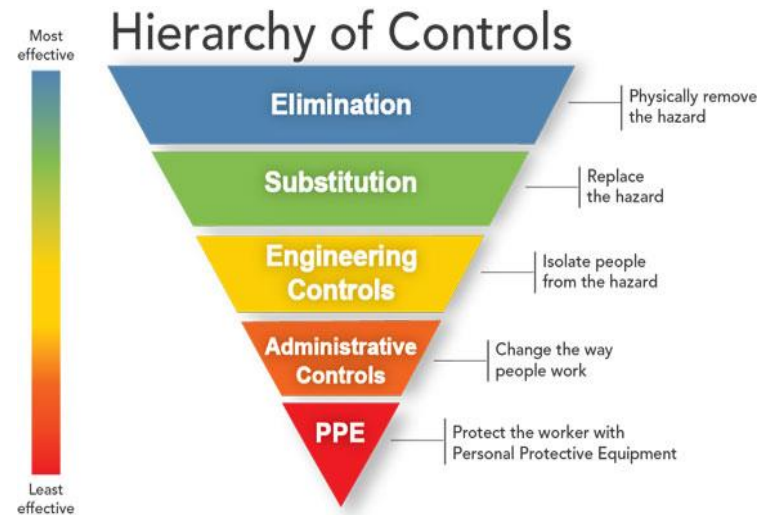
- 2002-03 SARS 유행, 전세계 감염자의 21% 보건의로 종사자 (캐나다 43%)
- 2015 국내 메르스 유행, 감염자의 21.5% 보건의로 종사자
- 2020/10/05 (최연숙 의원실): 코로나 감염 보건의로인력 159명 (간호사 101명, 간호조무사 33명 – 간병노동자, 영양보호사 등 제외)

“굉장히 불안했어요”

“두렵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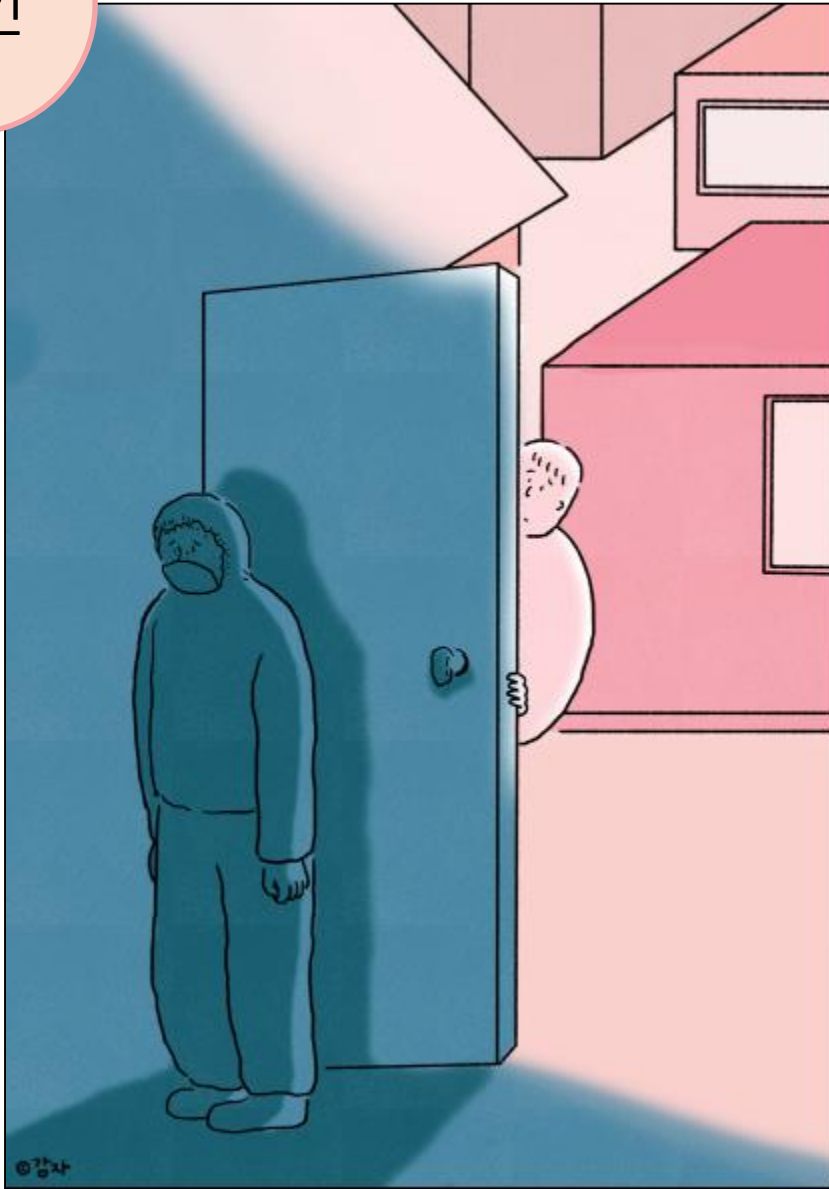
“한번은. 큰 사이즈를 입었는데, 올라와 버려 가지고 고글을 쓴 상태에서 올라와서 막아버리니까 공기가 차단되 버려서, 그 때 환자 시트 다 갈아야 되는 상황인데, 시트 갈면 숨이 차요. 들숨 날숨. 그게 막아져 버리니까. 환자 앞에서 저도 모르게 그걸(보호복) 뜯어버리고 문 열고 나와 가지고 입을 마스크를 내려가지고 숨을 몇 번 쉬고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날은 진짜 힘들었어요.”

- 보건의료 종사자 감염 문제의 특성
  - 유해 요인의 제거나 대체 불가능
  - 대면 서비스 불가피
  - 의료진 감염을 통해 취약한 환자에게 전파 (캐나다 장기요양, 노인거주시설 사례)
  - 종사자의 감염은 다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타격 ('인력 대란') → 나머지 노동자의 업무 과중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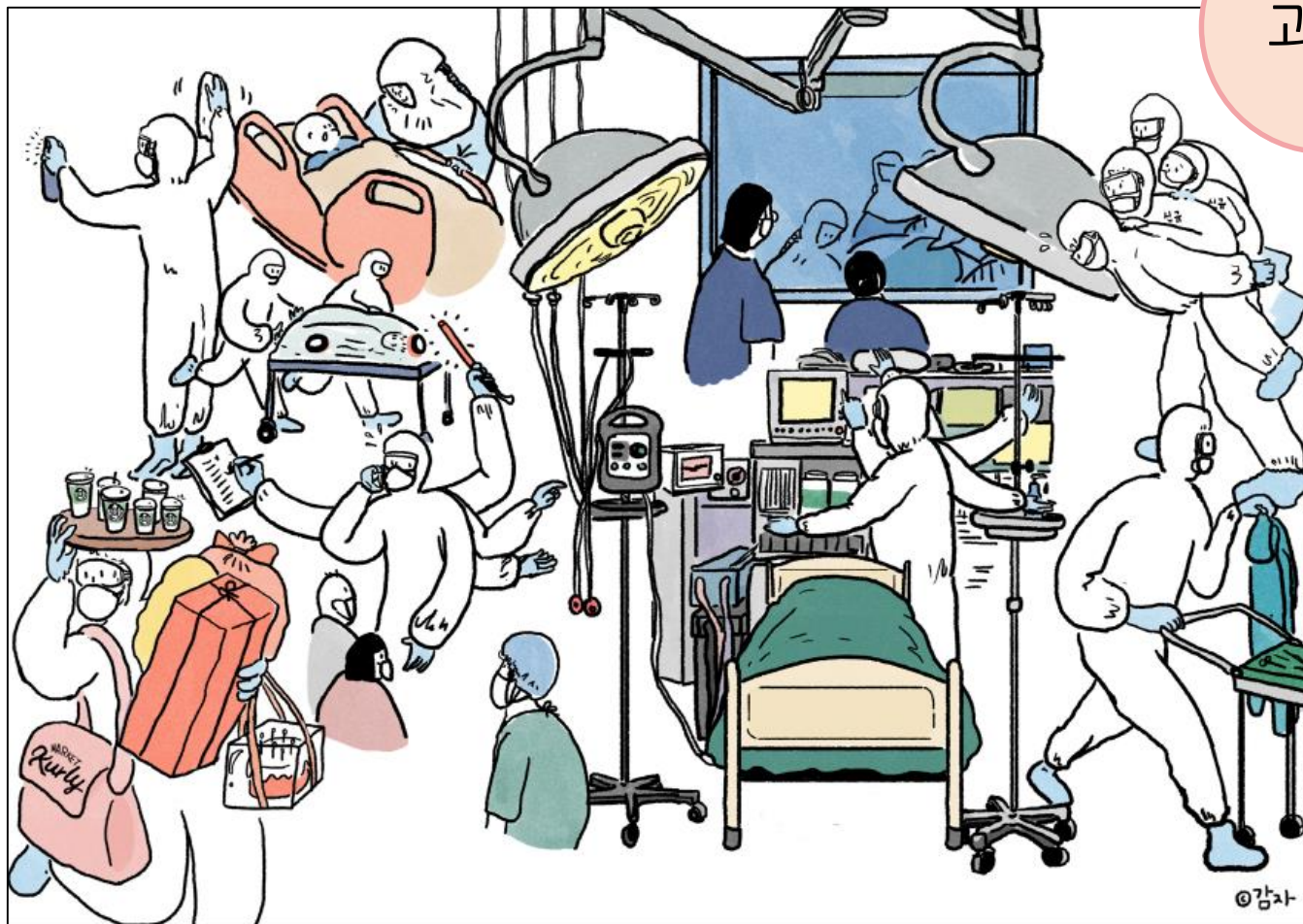


“응급촬영실 12명 근무인데 5명이 자가 격리 들어갔어요. 7명에서 근무하다 보니 주 52시간 못 지키고, 계속 십 몇 일 연속 근무를 했어요. 전부 다 우왕좌왕 하고, 전부 다 대비 안 된 상태에서 일만 계속 했던 거죠.”

## 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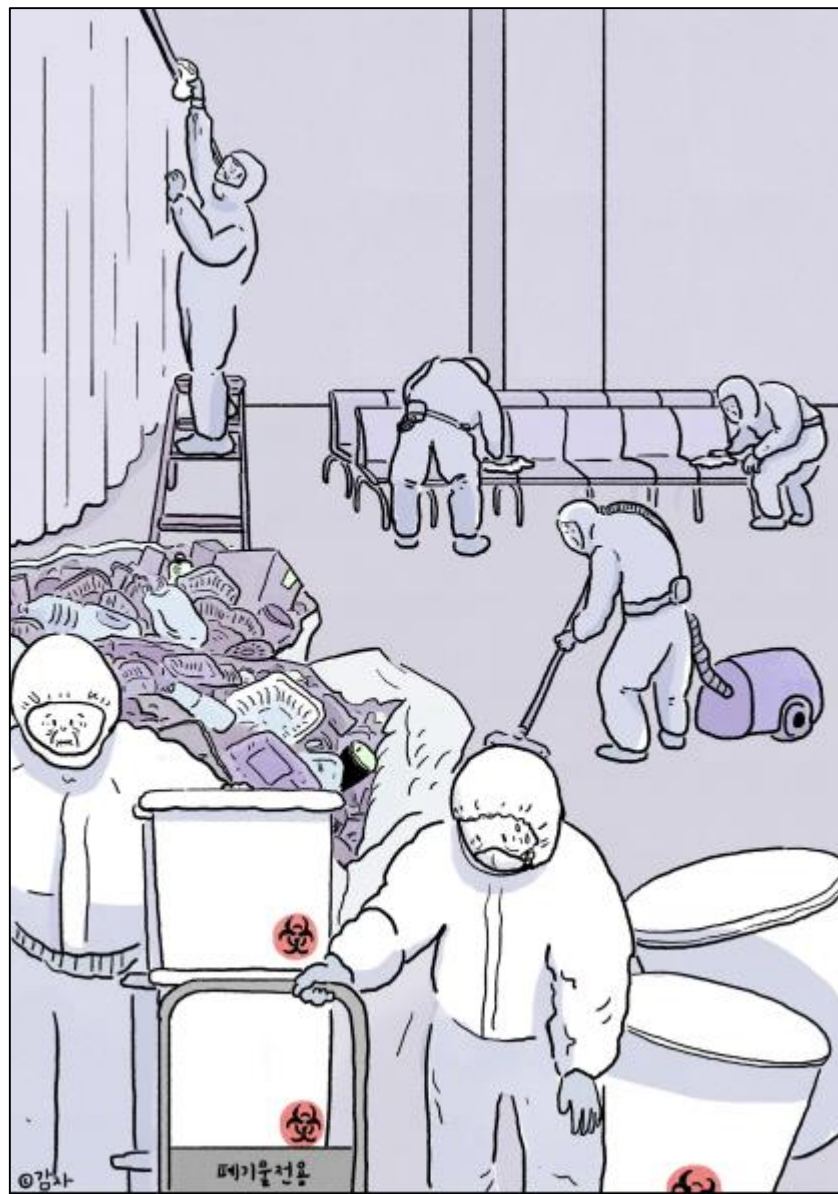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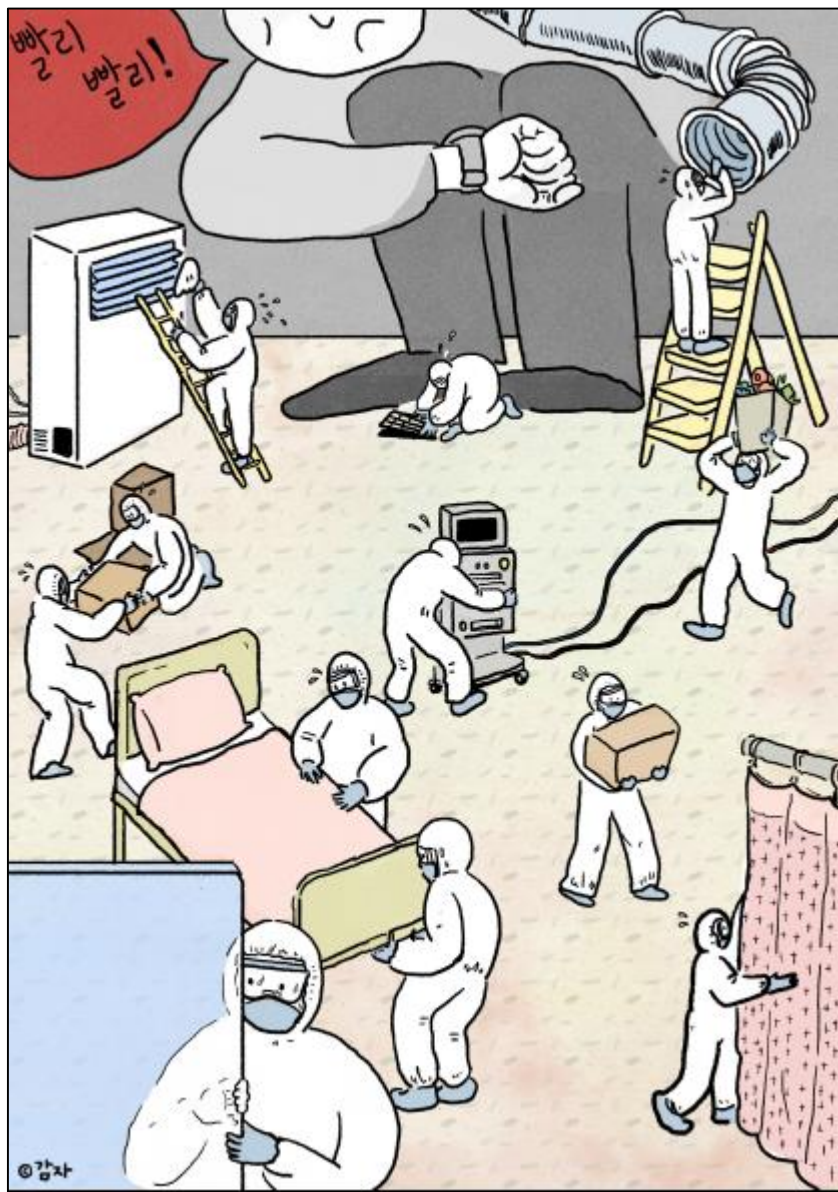


- 엄마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아이 돌봄 서비스 거절
- 코로나19 전담병원 근무한다는 이유로 동네 의원 진료 거부
- 임상병리사 사위가 병원 근무한다는 것이 동네에 소문났으니 “웬만하면 오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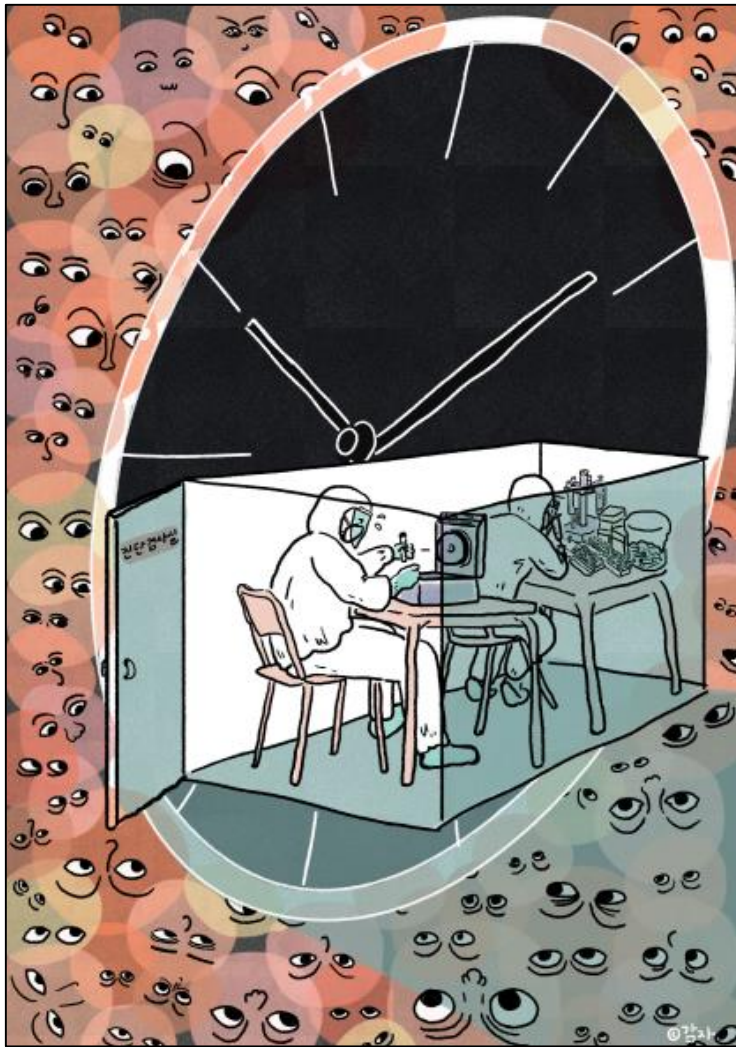
“정부는 병원에 미룰 수 있고 병원 경영진은 수간호사한테 미룰 수 있고 수간호사는 평간호사한테 미룰 수 있는데 우리는 미룰 데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에 따라서 2주 격리,  
회사 하나가 문을 닫고 이러니까  
좀 곤두서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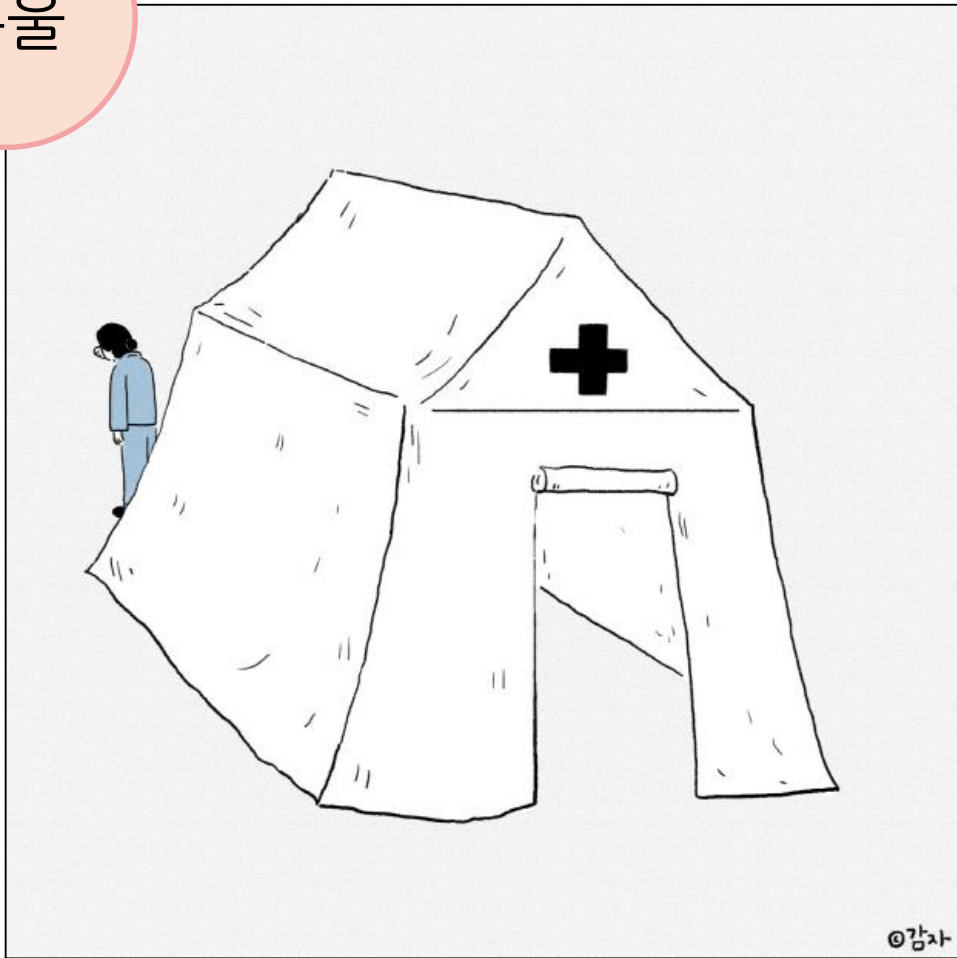
# 소진



©감사



# 우울



“무기력감과 우울감, 지치는 것, 끝이 보이지 않아요”



“집에 가도 두세 시간만 집에 있다 오고. 저희 아버지가 택시를 하거든요. 환자들 택시 이용하잖아요. 부모님과 식사 같이 안하고, 집에서 항상 마스크 쓰고 있고, 방에만 있어요.” (간호사)  
 “집에 가서도 애들이랑 밥을 못 먹겠더라고. 제 수저는 따로 소독하고 따로 밥그릇도 다 쓰고, 혹시나 싶어서.” (요양보호사)

# 건강 이외의 문제

“특수 고용에도 해당 안 되면  
우리는 ‘특’특수 노동자인가?”



사각  
지대

“격리가 안 돼요. 그게 병원에 한 사람이 열이 난다 그러면 앞방에 열 몇 사람을 그대로 넣고 12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한 사람이 이쪽으로 있고 나머지 5명이 이쪽으로 가면 11명이 되잖아요. 거기에 막 콩나물시루처럼 자야 되는 거예요.”

“격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단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복도 거실 같이 생활하는 곳에 한 방을 비워서.”

“그리로 선생님들은 왔다 갔다 체온 체크하느라 밥 먹이러 들어가고.”

“제가 이 격리된 환자도 케어하지만, 앞에 있는 11명을 또 케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격리 자체가, 말이 격리지 격리가 안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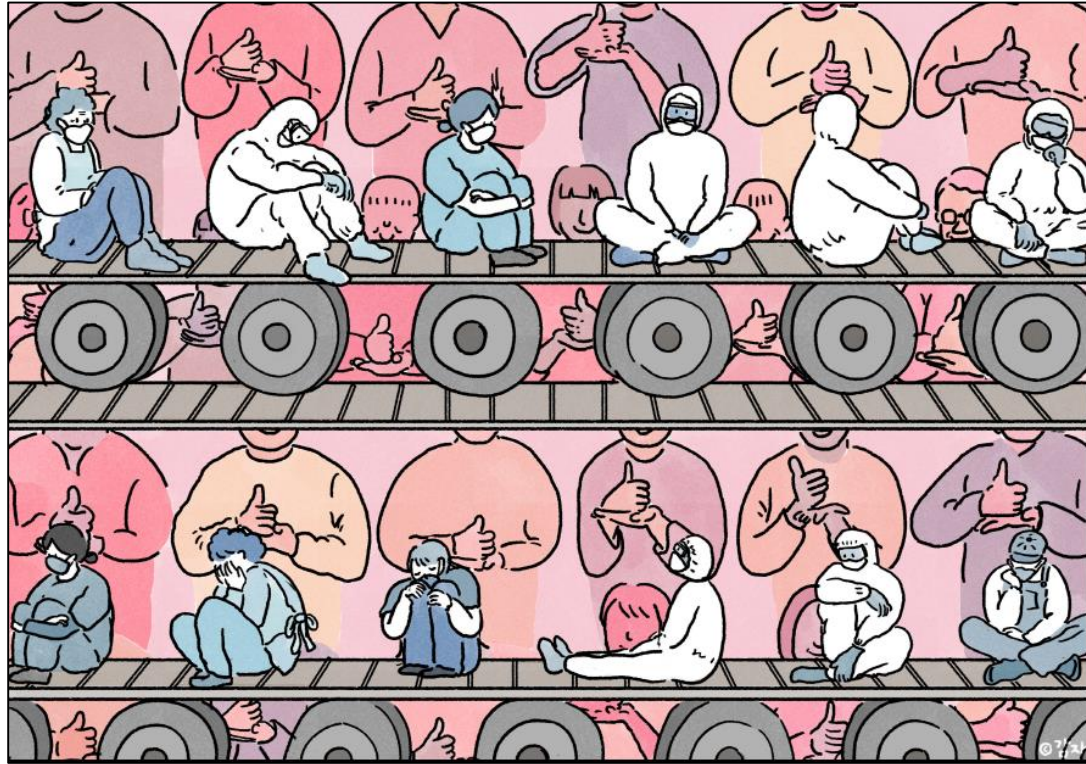




노동  
조건  
중요?



“닥치면 그냥 일하는 사람”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일하는 것 같아요”  
“부속품 취급 당하는 느낌”  
“던져놓고 끝인 거예요”  
“니들이 해야지 어찌겠어”  
“이렇게 막 굴리는 건 그냥 착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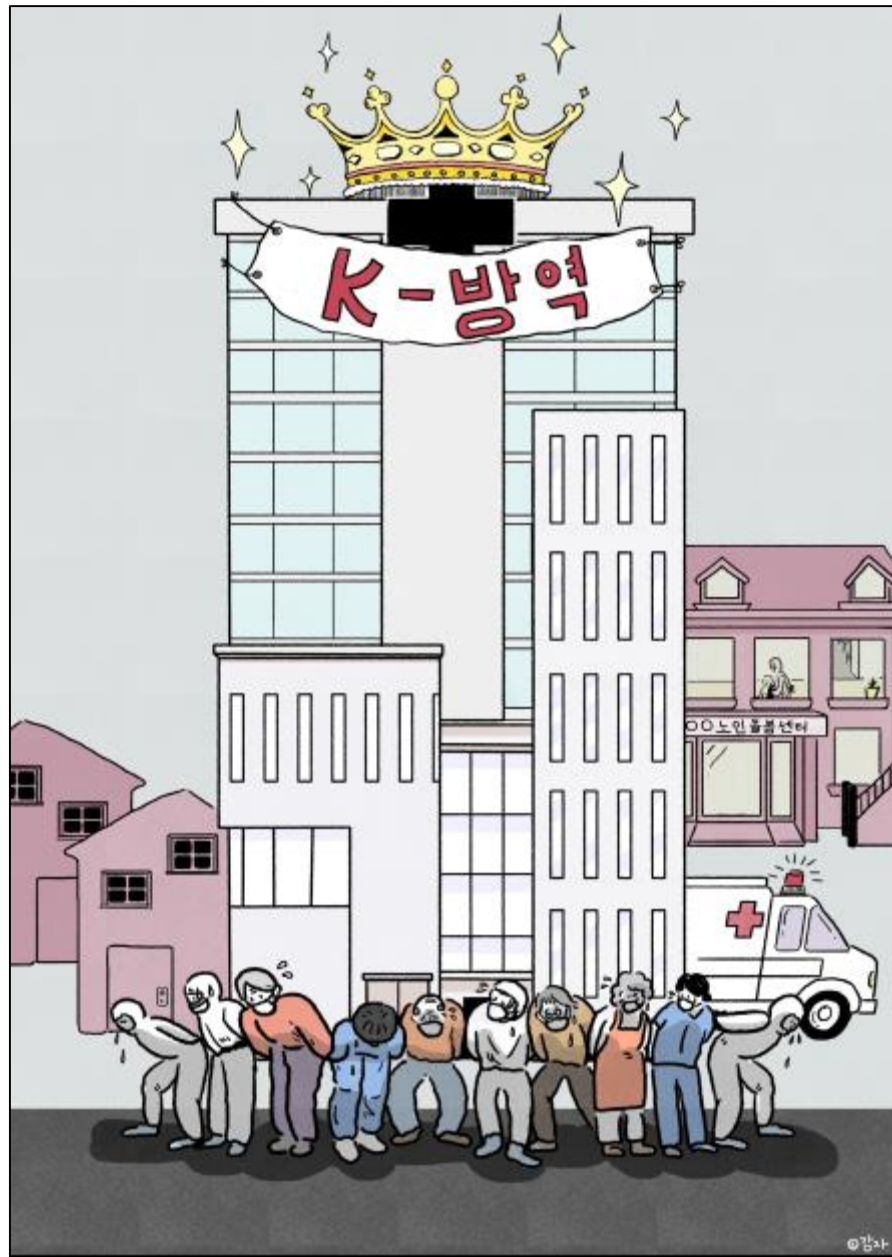
“덕분에 챌린지,  
현실하고는 너무 다르죠”

- 노동에 대한 존중은 없지만,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는 강조
- 영웅주의 서사 ‘코로나 전사’
- 불공정한 보상

연말뉴스

집단감염 오산 요양병원 간호인력 67% 사직.."의료 공백 우려"

최해민 입력 2020. 11. 11. 16:10 댓글 63개



# 문제의 원인

유비무환?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 직접적 위험 요소

- 개인보호장비: 가용성, 접근성, 질, 교육/훈련
- 환경 설비와 동선 설계

## 허약한 감염병 대응 '체계'

- 미흡한 선별 진료 체계
- '지침이 되지 못한 지침'
- 감염관리 역량의 취약성
- 노동자 역량 강화 노력의 부재
- 인력과 자원 배치 실패

## 작업장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 낮은 수준의 정보공유/투명성
- 참여적 거버넌스의 부재
- 성찰적 평가와 개선 노력 부재

## 취약한 공공성과 노동 존중

- '노동' 관점의 부재
- 공공부문 열세와 민간 의존
- 병원의 영리적 운영 구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공병원은 다르다

“설마 하면서도 모의훈련”  
“어차피 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믿을 건 노동조합

일하고 학습하는 노동자

- 헌신
- 동료 학습 “알음알음 배운다”
- 스스로 배우며 현장 지침 만들기

참여적 거버넌스 사례



# 팬데믹 시대의 노동자 보호, 무엇이 필요한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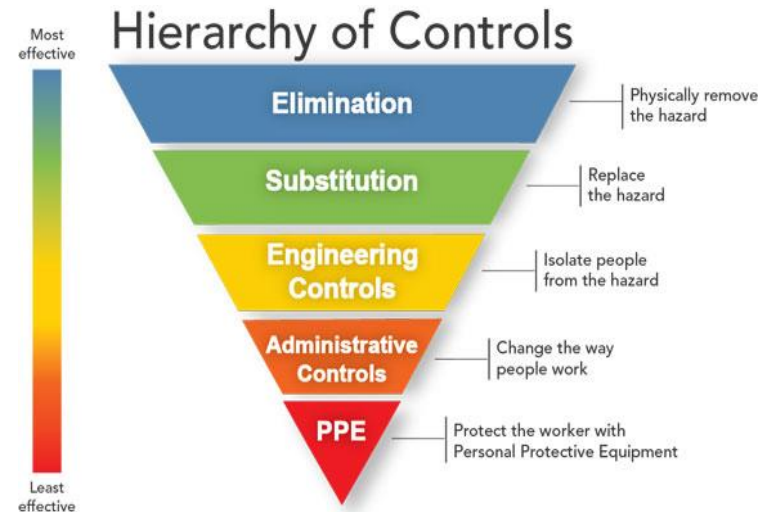
# ILO의 제안



정책 프레임워크: 국제 노동 표준에 기초한 COVID-19 대응을 위한 4가지 핵심 기둥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원칙

-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노동의 권리와 안전보건의 권리를 갖는 ‘노동자’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 보건의료노동자 보호에서 개인보호장구는 가장 낮은 수준의 안전장치이며,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인보호장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

- 각 개인에게 피팅(fitting)되도록 선택해야 한다.
- 노동자들의 작업이나 다른 개인보호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착용할 때마다 매번 정확하게 피팅해야 한다.
- 작업 동안 내내 적절한 피팅을 유지해야 한다
- 만일 재사용하는 경우, 적절하게 보관하고 점검하며 유지해야 한다
- 이러한 원칙은 상대적으로 쉽게 훼손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실패하여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때로는 경고도 없이 그리 될 수 있다.

- 신종 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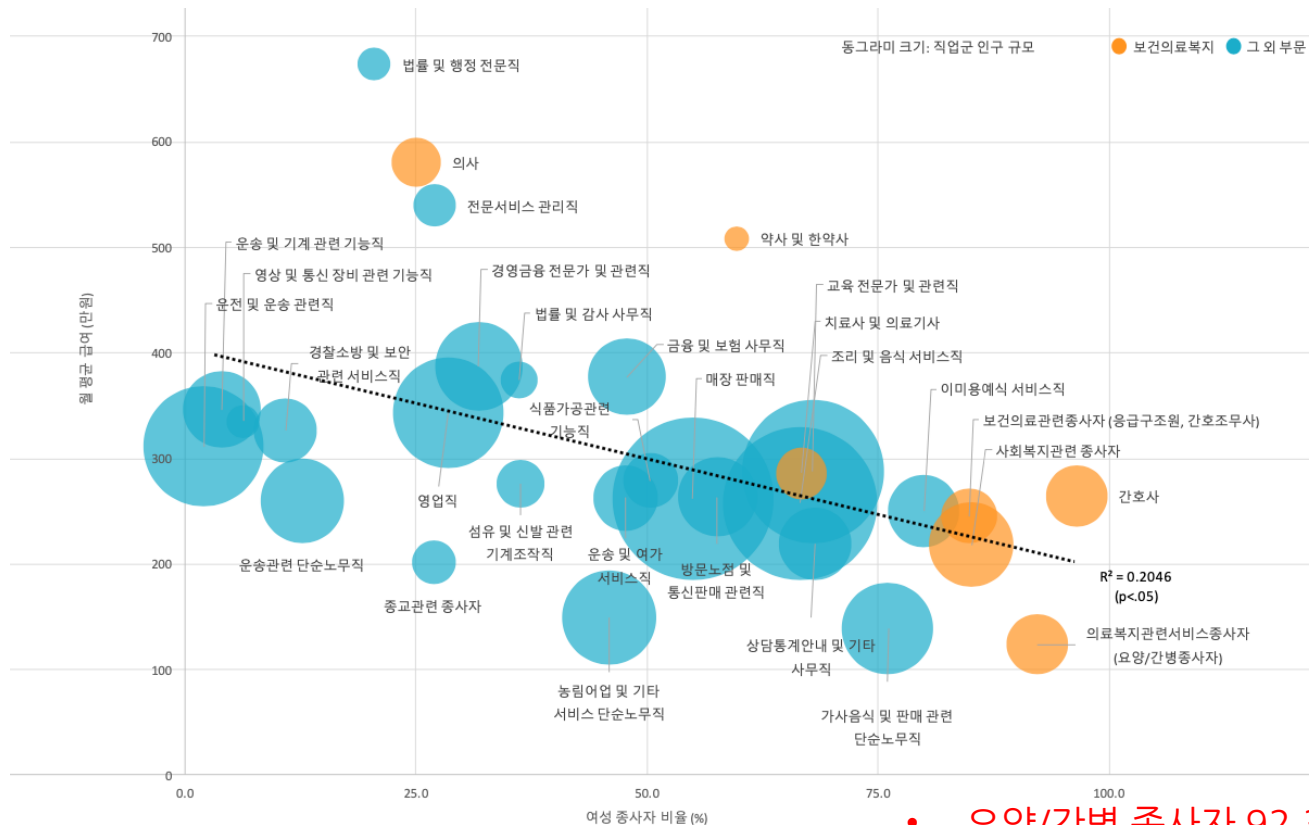
“공기전파에 대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가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이 아니라 안전이다. 과학적 지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어제의 과학적 도그마는 오늘날 버려야 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어제의 과학적 도그마 혹은 오늘의 과학적 도그마에 의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합리적 절차는 과학적 확실성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사전 주의 원칙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 (캐나다 SARS 조사위)

- 중요한 의사결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중요성 (뉴욕 주 621개 요양시설 중 355개 요양시설 자료 분석)

- 2020년 3월 31일 기준, 노동조합 있는 요양원 234개소 사망률 3.72%, 노조 없는 109개소 사망률 5.53% → 환자 특성 등 다른 요인들을 보정한 결과, 노조가 없는 기관에 비해서 노조가 있는 시설의 코로나19 사망률이 30% 정도 낮음
- 노조 있는 경우 입소자 감염률 42% 낮았고, 마스크와 아이실드 접근성 유의하게 높았음
-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 혹은 견제 역할을 통해 안전보건의 표준을 개선하고, 고용주의 집행을 촉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 (Dean 등, 2020)

- 젠더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2017 근로환경조사 +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 감염 고위험군 (3점 이상)

- 요양/간병 종사자 92.3% 여성, 124만 원
- 가사/육아 도우미 76.0% 여성, 139만 원

# 주체별 과제

- 보건의료기관
  - 노동조합/노동자 대표 참여하는 ‘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
  - 교육/훈련 체계화
  - 노동자들의 건강 필요(needs)에 부응
  - 자체적인 건강 모니터링 체계
- 정부
  - 복지부: 현장(!) 점검, 인력 확충, 보상 원칙 마련
  - 고용노동부: 책무성 인식(!), 모니터링 체계, 현장 근로감독, 보호장비와 작업 수칙에 대한 실증적 검토,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대처
  - 지방정부: 리더십 (surge capacity 동원 계획), 신중한 코호트 격리와 ‘현장 지원’, 필수 인력 돌봄지원체계, 정신건강 지원체계
-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맺음말

- 감염병 통제라는 사회적 목표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 보호라는 목표가 상충하지 않음
- 지속 가능한 방역과 대중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노동자의 안전 보건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 특히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보건의료, 돌봄, 공공서비스 등 ‘공공’ 부문 노동자 보호는 중요한 방역의 과제